

도서 종수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최근 4년간 납본종수에서도 2위를 차지해 주목받을 만했다.

또 영진닷컴, 크라운출판사, 성안당, 정보문화사 등의 약진은 이들이 주로 컴퓨터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한 실용서 출판에 매진해 왔던 것보다도 무관하지 않다.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실용 위주의 지식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변동을 말해 준다. 특히 대학교재와 사회과학서 전문 출판사인 한울, 방송통신대 전문 교재 출판사인 은하출판사

의 도약은 고정독자가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한다는 평가다.

박씨는 “출판은 국가 지식 정보의 보고이자 견인차로서 원소스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 즉 모든 문화 콘텐츠의 원천”이라며 “출판이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수준과 양을 확보할 때 한 나라의 미래는 활짝 열릴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한 나라의 명운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

취재_신동섭기자

mini interview

박몽구 씨 (출판평론가)

“잘 되는 출판사일수록 해야 할 일이 있다”



● 무실적출판사가 92.7퍼센트까지 된다는 것은 출판 양극화의 고착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출판사 영세성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메이저 출판사가 자금력과 그로 인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소규모 출판사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다. 결국 인문사회서적 시장이 좁아지고 어중간한 실용서, 즉 아류출판이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거대지본 출판사들이 생기면서 출판시장도 브랜드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 출판사는 신문기사에 의존하던 홍보마케팅을 탈피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홍보마케팅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장악력이 높아진 것이다. 독자들도 브랜드 명에 익숙해지면서 책을 고를 때 브랜드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 무실적 출판사는 우리 출판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무실적 출판사가 늘어난 첫 번째 이유는 7, 80년대

의미 있는 책을 냈던 출판사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들 출판사는 현재 개점 휴업한 상태다. 또한 출판시장구조도 무실적출판사를 양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어떤 책이든 내기만 하면 일정부수 이상 팔려나갔지만 이제 기본이라는 것이 없다. 안 팔리면 서점에서 2, 3일 만에 반쯤이 들어온다.

결국 과거와 같이 베스트셀러나 기본 판매부수만 믿고 출판을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시대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부터 시작해 출간계획부터 자본계획까지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 그렇다면 발행종수별 출판사 비율은 어떠한 것이 이상적인가?

개별 출판사 출간종수의 많고 적음이 한국출판문화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출판사들이 내고 있는 출간 분야의 고른 분포다. 우리나라 출판문화에는 풀림현상이 있다. 어린이책이 돈이 된다 싶으면 어린이책으로 몰리고, 실용서가 또 된다 싶으면 실용서로 몰린다. 문제는 한쪽으로 쏠림으로써 기본적으로 나와 주어야 할 책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너도 나도 자크 리앙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리앙 전집은 번역되어 있지도 않다.

● 작년부터는 출판사 등록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 신고제가 무실적출판사 양산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출판당국은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무실적출판사의 양산에는 출판자유화의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들 출판사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출판사들에게 왜 책을 안 내냐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출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령 학술원과 문광부 등

에서 우수학술도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대학 출신 교수의 책이 눈에 띄게 선정되는 등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양서를 출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당연히 의욕이 떨어진다. 정부로서는 지원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불어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발행자별 납본건수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출판사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신문에 기사화되는 출판사는 제한되어 있다. 물론 그들이 좋은 책을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출판사 책의 가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언론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독자들은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출판사들이 전문분야의 책을 꾸준히 냈으로써 일부 유명 출판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출판본령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일부 유명 출판사들이 고쳐야 할 것으로 지적할 만한 사항은?

모출판사에서 나온 한 시리즈는 현책방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여전히 있는데도 출판사에서 절판시켰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출판이 너무 시장논리에만 경도되면 우리 문화의 발전은 그만큼 더디질 수밖에 없다. 잘되는 출판사일수록 자신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역할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문화창달과 후세교육'이라는 출판본령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다. 번 돈으로 이윤은 남지 않더라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생산하고, 한번 시장에 나온 책은 가능한 한 절판시키지 않는 것이다.

<섭>